

고물가에 광주·전남지역 소비 '감소' 내수부진 '여전'

호남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
 지난해 2분기 이후 감소세 이어져
 광주 건설수주액 전년비 77% 급감
 소비자생활물가지수는 3%대 올라

고물가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소매판매(소비)가 감소하는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20.9로 전자·통신(-16.3%)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담배(26.2%)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5.3%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액지수는 96.3으로 전문소매점(1.3%)에서 늘었으나,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1%), 백화점(-13.3%)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7% 감소했다. 업태별 소매판매 증감률을 보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분기 1.2%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한 이후 △2023년 2분기 -4.0% △2023년 3분기 -1.5% △2023년 4분기 -2.6% △2024년 1분기 -4.4%로 전년동분기대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08.1로 금속가공(-14.9%)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기타 운송장비(71.7%)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4.8% 증가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95.6으로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7.6%), 대형마트(-7.4%) 등 모든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3% 감소했다. 업태별 소매판매 증감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2023년 3분기 -6.2% △2023년 4분기 -8.9% △2024년 1분기 -5.1%로 지난해 동분기

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와 수출입액은 광주는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3491억원으로 토목공사 수주(49.4%)는 늘었으나, 건축공사 수주(-88.4%)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77.1% 크게 하락했다. 수출액은 42억4000만 달러로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었으나,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7% 감소했다. 수입액은 16억5000만 달러로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등의 수입이 늘었으나, 전동기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7.4% 감소했다.

전남 건설수주액은 1조7018억원으로 토목공사 수주(-5.1%)는 줄었으나, 건축공사 수주(259.3%)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46.9% 상승했다. 수출액은 116억

6000만 달러로 철강 판 등의 수출이 줄었으나, 선박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8.6% 증가했다. 수입액은 107억4000만 달러로 비철금속광 등의 수입이 줄었으나, 원유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8.8% 상승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광주는 증가했고 전남은 감소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61.4%로 30~39세 등에서 하락했으나, 50~59세 등에서 상승해 전년동분기대비 1.2%p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78만5500명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만5600명 증가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6.8%로 15~29세에서 상승했으나, 50~59세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분기대비 1.5%p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101만6600명으로 도소매·숙박

음식점 등에서 늘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 역시 지역민들의 한숨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으로, 지출목적별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3.1%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분기대비 3.3% 상승했다.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3.0%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분기대비 3.6% 올랐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광주신세계가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에 맞춰 오는 29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 본매장에서 '신세계 추석 맞이 기프트' 행사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다. 사전예약을 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상의, 27일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

최항섭 국민대 교수 초청 강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제270차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민대학교 최항섭 교수를 초청해 '알고리즘, 감시사회에 대해 답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항섭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파리제5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를 취득한 인재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tvN '미래수업' 등 방송 출연과 더불어 활발한 연구 및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과학자가 보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권력변화와 세계정

치'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추천 동영상, 추천 영화, 추천 음악 등 점점 더 정교하게 개인화되고 있는 데이터 알고리즘과 수실실이나 방법용 CCTV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감시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이러한 초감시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기업 차원의 대응전략과 제도적 시사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에 최신 경제·경영지식과 글로벌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경영전략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1997년부터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오전 7시에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대연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gicci.or.kr)를 참고하거나 기획조사본부(062-350-5863)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생성형 AI 컨퍼런스' 연다

오는 30일 중소벤처기업 대상 프로그램 이용법·사례 등 설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하 호남연수원)은 오는 30일 호남지역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대상 생성형 AI 활용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사에 참여할 교육생 2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호남지역 생성형 AI 활용 컨퍼런스'는 보고서 작성, 홍보 디자인 등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이용법, 적용 사례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친숙하기는 하지만 직접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미

지를 개선하고,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 현황 및 트렌드 △Copilot 특징 및 활용사례 △FireFly 특징 및 활용사례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업무 효율성 향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어도비코리아 등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과 광주 IT강소기업 ㈜링크21이 참여해 강의를 진행한다.

호남연수원 조수정 원장은 "빠르게 바뀌어 가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이해는 불확실한 미래사회 속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며 "지역 첨단인력 양성 거점기관으로서 향후에도 발 빠른 AI 트렌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호남권 중소벤처기업의

지질 전환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연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광주광역시정의 AI 산업 육성의지에 발맞추어 13개 AI 활용 과정을 개설·운영했으며 올해 20개 과정, 800명 이상의 연수수료자 배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s://ssup.kosmes.or.kr/apply/grp/100727>)와 구글폼(<https://forms.gle/KqJftoEY8wfnpQnE7>)에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신청자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음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남연수원(062-250-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중기부·소진공, 오늘부터 접수 기업당 5천만원 10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 받는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예로가 있는 은

행권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 용도 여부는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전남신보, 청렴 서약·인권경영 선언문 발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8일 재단 본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인권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반부패·정립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서약과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 및 청렴 서약은 재단 ESG 경영 체계의 일환으로서 △부정정탁 근절 △공정한 업무 수행 △금품 수수 금지 등 전 직원이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정부패 근절을 서약

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 인권경영 선언문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근로자 권리보호 △고객 인권 보호 등 재단의 경영 전반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나다운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